

특별선교주일



인종평등선교주일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특별선교주일

인종평등선교주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7

아래의 예들은 인종평등선교주일을 통해 우리가 성령과 협력할 때 공동선을 위해 창출되었던 선물들을 보여줍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셨던 곳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진흙탕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이곳 베테커 커뮤니티 허버 센터에 오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샌드라 데이비스

“인종평등선교주일 특별헌금은 다른 방식으로는 불가능했을 장소들에서 우리의 사역이 꽃피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스티블린 레빈, 연합감리교회
지역 사회 개발자 프로그램 지역 책임자

“이 사역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이 한 명을 돌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돌봐야 하고, 더 나아가 그 지역 사회 전체를 섬겨야 합니다. 조각 하나가 빠진 퍼즐은 불완전한 퍼즐일 뿐입니다.”

—파멜라 버틀러, 험블 텍사스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해리스 카운티 담당 부서 수석 책임자

아낌없는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UMC.org/SSGive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특별선교주일

인종평등선교주일



오늘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가 인종평등선교주일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지역사회 개발자 프로그램(Community Developers)을 통해 지역사회 사역을 후원하고, 연합감리교회 자원봉사 프로그램(United Methodist Voluntary Services)을 통해 지역 사회 인권 옹호 사역을 지원하며, 청소년 범죄자 재활 프로그램(Youth Offender Rehabilitation)을 통해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돕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물은 공동체를 건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통해 공동선을 만드는 일에 쓰입니다.

참여 방법:

체크 메모난에 “인종평등선교주일”을 써서 섬기는 교회에 헌금하세요. 웹사이트 UMC.org/SS-Give에서 온라인 헌금을 드리거나 월 약정 헌금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와 세상, 또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들은 변화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됩니다. 교회는 걱정, 염려, 변화의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돕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인도할 치유와 소망을 제공하는 일을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예물과 후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람들과 함께 고통 중에 있는 세상에 분명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임재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드리는 연합감리교회 특별선교주일 헌금은 섬김의 지도력, 지역사회 건설, 평화와 정의의 사역에 투자됩니다. 공동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일은 신실한 결단을 통해 우리가 은혜로 충만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제도적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웃들이 빈곤에 시달리면서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드리는 인종평등선교주일 예물은 종교 계통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역사회 개발자 프로그램 및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적 물질적 예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말했던 “사랑받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쓰입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